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18. 1. 15(월)16:00~18:3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김상택(기획처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도재형(총무처장), 류한영(재무처장),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공주복(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불참자 (0명)			
안건	'18년 예산(안) 및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 의결		
내용	<p> 개회 </p> <p> 위원장은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p> <p> 회의내용 </p> <p> 1. 회의록 수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위원들에게 모든 위원이 날인한 회의록에 있는 사안만 공개할 수 있음을 당부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 수정은 발언 당사자가 본인의 의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게 본인이 발언한 것만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본인만 수정할 수 있으면 회의록 왜곡과 회의 내용의 누락을 우려하다. 회의록 검토 후 문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지난 회의 합의사항에서 회의록을 더 자세히 기록하기로 했음을 언급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위원 모두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며, 회의록이라도 속기록처럼 자세히 쓰자고 합의했으니 합의사항만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 예산팀장은 등심위는 위원 모두 대표성과 책임감을 갖고 모인자리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을 때에는 취지나 맥락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합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려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함을 말한다.

- 예산팀장은 1차 회의록에 대해 학생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들에게 보내고 발언당사자의 검토를 거친 뒤 날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 위원장은 1차 회의록 서명은 보류하고 회의 안건으로 넘어간다.

2. 논의사항

가. 자료제공 관련사항 논의

- 예산팀장이 차기 회의의 안건인 등록금 책정(안) 심의는 회의장 내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기에 안건에 대한 열람 자료가 없음을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회의 자료를 미리 열람하는 것은 보고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지난 회의 때 회의자료 열람에 관해 논의한 사항과 다르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예산(안) 자료는 분석 자료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열람 시 제공하였으나 등록금 책정(안)은 회의 안건이며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미리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한다.

-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은 요청했던 것보다 회의자료가 자세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자료가 없음에 유감을 표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외부업체 임대료와 실험실습비 관한 자료를 재요청한다.

- 예산팀장은 학생위원이 지난 회의 때 요청한대로 추경예산과 달리 특정목적기금의 기금명을 명시하였음을 말한다. 외부업체 임대료의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임대료는 업체의 영업기밀 사항이기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말한다.

- 재무처장은 수입부분에 총 외부업체 임대료는 기재되어 있으며 개별 업체의 임대료는 계약서에 보안유지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개별대학의 실습비 공개 여부는 검토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결산이 없는 상태에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가결산을 제공할 것을 말한다.

- 예산팀장은 추경예산 자체가 회계연도 말까지 모두 집행한다는 가정하에 편성한 것이기에 추경예산을 가결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추경예산과 가결산은 다르다고 말하며 가결산이 있어야 추경예산이 더 타당한지 논의할 수 있음을 말한다. 총학생회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집행된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함을 덧붙인다.

- 재무처장이 추경예산 편성시의 집행율을 고려하여 예산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현재 가결산자료가 없으면 올해부터라도 가결산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 외부위원은 추경예산과 가결산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가결산이 있다 해도 추경과 거의 같은 수치일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추경과 가결산이 거의 같은 개념이고 거의 같은 수치이며 가결산도 결산에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전에 동일한 작업을 두 번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낭비라고 말한다.

- 재무처장은 가결산에 대해 각 위원의 말을 회의록에 남기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제안하다.

- 위원장은 예산(안)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제안하며 재무처장에게 예산(안) 설명을 요청하다.

나. 예산(안) 심의

- 재무처장은 학부 입학금 16% 인하계획과 수업료 동결,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편성된 2018년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을 설명하다. 단기수강료는 증가하나 입학금인하와 대학원 충원을 감소로 전체 등록금 수입은 감소함

을 설명하다. 재정지원 사업비 감소로 국고수입도 감소하며, 예금이자, 고정자산 수입 등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지출부 관련해서는 보수 및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연구학생경비의 감소는 국고관련 장학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다. 토지 및 건축비는 작년에 집행되지 않은 것이 이월되어 증가함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부 입학금을 인하하는 상황에서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하는 자대생의 입학금 폐지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학부 입학금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상황임을 말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대학원 입학금의 폐지에 관해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조교인건비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조교인건비는 각 기관의 수업 지원 인력 인건비임을 설명하다.

- 총부학생회장이 입학금 전액이 신입생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입학금은 건을 명분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입학금 즉각 폐지를 요구하다.

- 예산팀장은 입학금의 용도는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 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교직원인건비, 학생경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전반에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부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교도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음을 설명하다.

- 외부위원이 추경예산에서도 총원율이 감소하여 등록금수입이 줄었는데 '18년 예산에서도 또 감소한 이유와 총원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이 '17년도 총원율 감소로 인해 '18년도 재학생수도 감소함을 설명하며 같은 총원율을 가정했을 때 등록금 수입은 더 줄어들음을 설명하다. 또한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하다.

- 외부위원은 자연승급분만 반영되었는데 교원급여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음을 지적하다.

- 재무처장은 자연승급분과 인원증감분 반영 외에도 시간강의료 증액의 가능성도 포함하였으며, 실제 집행과정에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보고자 한다고 덧붙인다.

- 위원장은 강의 분반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면 강사료도 늘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의대, 공대 편제 조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증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재무처장은 의전원 폐지로 인해 의과대학 정원이 늘고, 프라임사업을 통해 학과 간 편제조정으로 공대 정원이 늘어나 학부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예금이자 추경예산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이 은행이자율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에 따라 투자 신탁이나 채권형 상품 금리는 하락함을 설명하다. 또한 기금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들음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이 법인전입금이 추경예산에 비해 4억만 증가함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다. 동아리 연합회장은 예산안 의결 시 법인전입금이 현재 예산안대로 확정되는 것을 우려하다.

- 재무처장이 회계주체가 달라 확답은 어려우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의 요청과 실제 전입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는 학생이 교직원과 만나 예산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데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듣는 것에 유감을 표하다. 또한 법인책임자가 등심위에 참여하여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 재무처장은 지난 회의록에도 법인전입금 관련하여 모든 위원들이 학생위원의 말에 동감함을 기록한 것이 학교의 1차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하다. 해당 사항은 학교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즉답이 어렵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전입금

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음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예산안 의 결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에 정원 외 입학이 증가함을 말하며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인상이 반영된 것임을 질문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 인상이 아닌 학생수 증가로 인한 등록금 수입 증가 임을 설명하다.

- 외부위원이 병원전입금 증가에 대해 병원과 합의가 있었는지와 기숙사 수입 감소에 대해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병원전입금에 대해서는 병원과 확인한 된 사항이며 기숙사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총원율을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하였음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장과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기숙사가 늘어나고, 학생들 의 기숙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기숙사 총원율 감소예측에 대해 의문을 가지 며 정확한 이유를 요구하다.

- 예산팀장은 기숙사 수입은 총원율에 의한 것이며, 기관에서 부서 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차년도 수입을 예측 한 것임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들은 특정목적기금의 기금명만으로는 용도와 목적이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각 기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다.

- 재무처장은 대학역량확충기금은 대학의 교육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 이고, 총장미래 전략기금은 신설된 기금으로 총장이 신사업 진행을 위해 모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원금증가 부분은 등록금 이외의 재원에서 적립된 것이고 이자부분은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임을 설명하고, '18년도 예산의 특정목적기금의 잔액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에서 기금제외한 수입보다 지출이 큼을 언급하며 그 차액을 기금에서 인출하여 기금이 감소하는 것임을 확인하다.

- 동아리연합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인출되는 것 임을 질문하며 기금인출의 상세자료를 요청하다.

- 재무처장이 기금은 사업에 따라 개별로 인출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설명하다. 다만 기금인출 시에는 목적에 맞게 인출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은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상세자료는 확인 후 다음 회의 때 설명하기로 하다.

- 동아리 연합회장이 타 학교보다 자료가 상세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며 회의 자료가 자세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안을 증감만 설명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은 학교마다 자료의 공개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학교기관의 특성상 학사일정에 따라 정례적인 사업이 많고 건축이나 내부적으로 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 큰 변동이 없음을 말하다. 따라서 변동이 크게 되는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 재무처장은 지난번 회의 때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부사항을 제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니 위원들이 특정항목을 지정해서 요청하면 더 자세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는 자리가 등심위 밖에 없는데 오늘의 미비한 자료로는 예산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말하다. 또한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입학금 즉각 폐지와 등록금 인하 요구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을 말하여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을 제안하다.

- 총무처장이 다음 회의 때 등록금 책정과 예산안 심의를 같이하자고 제안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 심의는 다음 회의 때 의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위원 모두가 동의하다.

다.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의결을 제안하며 재무처에 설명을 요구하다.

- 재무처장이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포함한 지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다.

- 총부학생회장이 감가상각비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이 '18년 예산 등록금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편성하지 못했음

을 말하다. 만약 회계연도 말에 등록금회계 잉여 발생시 감가상각비를 편성하겠음을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을 포함한 모든 잉여금을 장학금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다.

- 재무처장이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구학생경비에 장학금이 포함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명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포함한 지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 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한다.

라. 부속병원회계 추경 및 예산(안) 심의

-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하여 부속병원 기획과장(이하 부속병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부속병원은 '17년 추경예산(안)은 '17년 본예산 대비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이 늘었고 공정을 지연으로 차입금이 줄었음을 말하다.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모두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18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료수익은 감소하였고 '17년 추경에서 줄어든 공사비용이 '18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차입금이 증가함을 설명하다.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료비가 줄었으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증가하였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이 인건비가 '17년 추경예산(안)과 '18년 예산(안)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질문하다.

- 부속병원은 '17년 추경예산(안)의 증가분은 교원 1명 증원, 병원 위탁 운영 종료로 인한 위탁병원 직원의 본원 편입, 임금협상 분을 반영시킨 것 이라고 말하다. '18년 본예산(안)의 증가사유는 인건비는 본예산에서는 총원율을 고려하지 않고 정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다. 이는 총원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60~70%만 총원됨을 덧붙인다. 또한 통상임금 기준의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수익의 감소가 재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다.

- 부속병원은 재료비 중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약품비는 줄일 계획이 없으며 그 외의 재료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하다. 최근 병원사태로 인해 개보수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증가할 예정이라 이를 재료비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외부위원이 차입금 감소에 비해 이자비용 감소가 적음을 지적하다.

- 부속병원은 상환계획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병원 사태로 인해 의료수익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수입과 지출 모두 늘은 것에 대해 질문하다.

- 부속병원은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며 공사에 따른 차입금으로 고정자산도 동시에 증가함을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부속병원이 차입금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였고 그 수입으로 건물 건축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의 '17년도 추경예산(안)과 '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명이 찬성하고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명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부속병원회계의 추경예산(안)과 '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부속병원회계 '17년도 추경예산(안) 및 '18년도 예산(안)

- 예산팀장이 회의시작 2시간 전부터 자료 열람이 가능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며 다음 회의 때 오늘 예산(안) 자료에서 보충하여 제공하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다음 회의는 2시부터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상세하게 주는 것을 말하고 모든 위원이 이에 동의하다.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것을 제안하며 등록금 납부 일정 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회의가 마무리되어야 함을 말하다.

- 위원장은 위원 모두가 날인한 회의록만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모든 위원들에게 당부하다.

3. 다음회의내용

- 2018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 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8년 1월 15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 원	안현주	안현주
위 원	김상택	김상택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혜린	김혜린	위 원	정한경	정한경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차안나	차안나
위 원	류한영	류한영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문지영	문지영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신혜슬	신혜슬			

작 성 자

예산팀 안 예 지 안예지